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여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1년 1월 1일 (금) 제 802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조영철 · 편집인/ 김병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2021신년
메시지

「소망을 품고 새로운 미래로」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23:18)



총회장 조영철 목사 (오사카북부교회)

2021년 소망의 새 해를 맞이하여 재일대한기독교회 (KCCJ)에 속한 모든 교회와 신도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는 성경본문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주며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1.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사51:12)고 하였고, 특히 말씀을 통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 119:50)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고난 가운데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통해 우리 인간은 소망의 빛과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2. 두번째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롬15:13)

즉, 우리의 현실은 절망과 고난의 연속이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상황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때로는 절망적인 현실을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본문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계의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보면, 오랜동안 어둠과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과 어둠의 역사를 넘어 극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과 그들에게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포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29:11). 당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 19를 비롯한 많은 고난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속해 있는 신도 여러분!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길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아직 어려운 현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해 가는 우리 모두의 금년 1년 동안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ルツ結婚相談所

在日韓国人・帰化人、結婚・再婚を望んでいる人へ
年齢 23歳～70歳まで、北海道から九州まで

親身になってご成婚までねばり強くお世話を
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

090-3429-9707 代表 崔貞淑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2019년을 맞이한 신임 선교사들의 메시지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구자우 목사>

2019년 5월 26일 위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아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부족하여서 여러 면에서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도착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안팎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서 더욱 신중해집니다. 교회의 상황은 3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오전, 오후 3번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새벽기도회와 수요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준비도 충분하지 못하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주안점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제일동포 교회로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교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상당한 영역이 선교지라는 명목하에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을 잃고 있어서 그 점을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선교의 거점이요 센터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물론 이미 교회에는 일본인들의 참여로 상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해에 일본인 두 분이 세례를 받았고, 새해는 처음으로 일본인 제직이 임명되어서 교회를 위해,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동포와 일본인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과 나아가서는 교회 내에 일본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독특한 일본 사회에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으려면 역시 일본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복음적 환경은 척박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이미 전개 중이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울타리는 선교사역의 부족함을 바로잡아 주고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 선교를 위하여 언제나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모노세키교회 <김성언 목사>

2019년 5월 19일 위임



저는 西新井教会와 船橋教会에서 선교사로 시무했던 김중무목사의 아들로써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신학공부는 한국에서 하고 목사가 된 후에,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시모노세키에 정착한지 3년이 되어갑니다. 이곳 시모노세키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한일간의 근대사와 정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동포들의 삶과 현실을 바라보며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특히 제 자신을 연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일간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바람에 교회와 신도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저는 한국에 잠시 돌아가 있었던 가족들과 6개월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앞으로도 잠시 동안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모든 일을 선한 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거라 믿습니다.

시모노세키교회는 올해로 93주년을 맞이합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이전보다는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작은 자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서로 섬기고 더욱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모노세키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사카교회 <김신우 목사>

2019년 5월 12일 부목사 취임



2018년 5월 저희 가족 5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파송 선교사로 일본에 온 지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부푼 기대감과 소명을 가지고 오사카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되어 저희 가족은 인플루엔자를 시작으로, 오사카에 태풍과 지진, 한일관계 악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단기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부딪쳐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YMCA 일본어학원에서 언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사카교회 부목사로, 아내는 찬양사역으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명의 아이들도 소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도 사귀고, 언어도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글을 쓰며 일본에서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니 섬기러 온 오사카교회에서 오히려 담임목사님과 신도님들을 통해 섬김을 받게 하였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내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중과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 저기에서 들려오는 답답하고 어두운 일들로 암담한 시대를 살아 가고 있지만, 우린 예수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이 곳 일본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로 선교사역이 녹녹치 않은 때이지만, 이 코로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카시교회 <윤종현 목사>

2019년 5월 19일 위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서 일본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아카시교회에 약 2년 전에 부임하였습니다. 아카시시는 효고현 고베시 인근에 있는 해협에 접한 오래된 지역이라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곳으로 복음전도에 있어서는 힘겨운 곳입니다. 그러나 부임 이후 한국어 교실, 김치 교실 등 문화 교실들을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 현재는 문화교실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또한 다시금 전도의 기회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53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답게 마땅히 지역 사회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다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가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모든 신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열심히 배우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기에, 언젠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완수했던 안디옥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카시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교원의 방주로 귀중하게 써 주실 것을 믿으며 아카시교회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벧부교회 <조현규 목사> 2019년 5월 5일 위임



저는 부친 故 조중래목사의 장남으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본에서 졸업하고 귀국해서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서 선교사로 파견 받아 다시 일본에 온지 4년이 지났습니다. 벧부교회는 2018년 11월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벧부는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며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벧부교회는 2000년 11월에 유학생들을 위하여 세워졌습

니다. 2020년 11월에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도 각 나라에서 온 여러 유학생들이 함께 모여, 이곳에 사는 한국인, 일본인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감사와 겸손으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제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제일동포, 일본인 모두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두 딸(만4살, 2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 유치원에 들어가 잘 적응하고 있고 둘째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두 딸에게는 여전히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모두가 잘 적응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 가정과 벧부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관서지방회

제 3회 여성 교역자 · 장로와의 좌담회 개최

관서지방회 여성부는 제3회<여성 교역자 · 장로와의 좌담회>를 2020년 11월23일(월) KCC에서 개최되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감염 방지의 관점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액의 설치 및 환기를 준수하고 감기 증상이 있는 분에게는 참가 자속을 권했다.

이번에는 <제일대한기독교교회에 만들어진 고정관념> ~고정관

념을 깨닫고 타파하기 위해서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필순 목사의 (1)서 있는 자리를 확인할 때 보이는 것, (2)교역자 사례의 격차, (3)교역자의 자질의 문제와 『헌법(성선설)』 그리고 임방자 명예장로의 (1)여성회와의 관계, (2)활동 목표, (3)관서지방회 여성부의 걸어온 길과 행사 · 학습회등의 발제에 대해 참가자는 편하게 각각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각종 행사의 중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연된 개최였지만 참가자는 뜻 깊은 시간을 함께하였다.



특별기고

오사카교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오사카교회 정연원 목사

2021년은 오사카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100년 전의 1921년은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지 11년이 되는 해로 많은 조선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오기 시작을 한 때였다. 당시 神戸신학교에 재학중이던 金禹鉉神學生과 大阪 難波撰津(난바세츠) 방직공장의 女工인 金義生, 明石방직회사의 申南秀(오사카교회 尹浩信 名譽長老 祖母) 자매와 기도회로 시작하여, 金成河氏宅의 2층에서 전도소를 마련하였다. 당시 大阪地域에 살고 있는 동포의 수는 35,000명이 있었다. 예배 처소는 김성하씨택, 난바스여학원 기숙사, 풀학원 등으로 전전하며 예배와 전도에 힘을 다했다. 1935년 창립15년이 되던 해 東成区 大成通에 교회당을 마련하여 36년간 사용하였다.

목회자로는 창립 당시 金禹鉉, 朴尚東牧師(당시 신학생), 初代 禹東哲, 全仁善, 朴命俊, 李宗憲, 崔正洙, 金德成, 盧政一牧師에 이어 현재 시무하고 있는 鄭然元牧師는 제8대 위임목사다. 교회의 조직은, 1927년 첫 번째 공동의회 개최와 교회학교가 시작되었다. 1931년 하기 전도집회를 인도하던 전인선전도사(당시 신학생)가 경찰에 검거되어 집회가 중지되는 일도 있었다. 1935년 공동의회에서 姜喜錫장로가 선출되어 제1대 장로가 되었으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11명의 장로와 해방 후 첫 번째 尹用道장로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45명의 장로가 교회의 치리와 봉사를 해오고 있다.

제6대 金德成목사께서 1970년 부임하여 교회건축을 위해 부지를 구입하고 1978년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완공된 5층으로 된 건물의 1,2층을 愛信보육원을 설립하여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선교거점으로 삼게 되었다. 2020년 大阪教会는 등록교인 577명과 교회학교 60명(교사포함), 노인대학 등록학생 200명, 교역자 2명, 시무장로 12명, 시무권사 20명, 제직 159명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

매일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주일예배는 일본어 예배(1981년부터 시작)와 한국어 예배(일본어 동시통역), 헌신,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성경공부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1985년은 교회 예배와 음악을 위해 파이프올แกน이 설치되었

고, 글로리아 브라스밴드가 창단되어 오늘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자매교회 결연은 한국교회와의 선교적 연대를 위해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하였다. 서울 노량진교회(1981년), 부산 양정교회(1988년), 포항중앙교회(2006년), 선교협력교회 서울 마포교회(2003년), 제주 성지교회(2016년), 제일동포 교역자의 신학, 목회훈련과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교회창립100주년을 위해 2017년9월 당회에서 大阪教会 100周年 기념 관련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행사, 기념사업에 관한 조직을 하고, 역사 편찬을 위한 조직(책자, 전서책자, 사진집), 기념교회(国内外 포함) 설립, 교회당 관리 보수, 선교이념과 비전문 작성, 자매 교회 및 선교협력교회 관련 사업, 100세 되신 어른 찾기(在日,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 100周年 기념 성경쓰기, 음악 연주회, 기념 집회, 본 교회 출신 교역자 초청 집회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건축 후 43년이 된 교회건물의 보수와 지진 대책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일이다.

교회 주제는 <100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전하는 해>로 이사이61장2절을 중심 말씀으로 삼고, 차세대 신앙계승을 교회의 목표로 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제일동포와 일본인, 다양화되어가는 사회와 시대적 상황에 예언자적인 사명과 화해의 공동체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100주년 행사는 기본적인 계획과 코로나 감염사태로 인해 단기적 행사는 간소화, 비대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교회연합회

제1회 중앙위원회 개최 <기도로 하나 되자> 내걸고 전진



지난 11월28일, 29일, 2일간에 걸쳐 토요하시교회에서 제1회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전협 임원은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깨닫고 <전협> 라는 조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코로나 중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생각해 보면 식사를 때, 목욕할 때조차도 임원들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시간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는 토요하시교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토요하시교회 정수환목사님의 설교는 신도는 물론, 전협도 그 대상으로 각자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똑바로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었다. 또한 예배가 임원 개개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신앙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며 감사가 넘치고, 신도들과의 따뜻한 교제를 하며 2일을 보냈다.

2020년도 청년회 전국협의회 임원들은 3가지 공통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금년부터는 지금보다 더욱 어려운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으면서 가는 것은 몸과 마음에 많은 어려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금년 전협의 신조 표어 <기도로 하나 되자> (토요하시교회:이누이 하루키 대표 제창)를 내걸고 모든 임원 힘차게 전진하는 조직이 될 것을 약속했다.

(보고:야나기마치 사토시 총무)

<선교위원회가 주최한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하는 KCCJ」 토론회 주제강연>

코로나 시대 KCCJ의 선교 과제 (하)

이 원 중 (교토남부교회 협력 목사)



4.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선교 과제 (이어서)

2) 믿음의 시험 : 복음이 우리 일상 안에 살아 있는가?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가,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예배가 아닌 것으로 여기고 대면 예배에 강조점을 두기 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이들 역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목회를 강화하는 신학과 믿음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만한 기술이나 장비가 없는 교회는 총회나 지방회, 혹은 다소 여유가 있는 교회가 나서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참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참석 지침이라든가 안내서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모이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더욱 그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18:20).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온라인 예배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 즉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성소(聖所)가 되었으며 가정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명확히 증거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살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3) 소망의 시험 : 비전을 가진 공동체 (꿈을 꾸는 공동체)

기독교적 용어인 소망은 꿈, 성장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의미한다. 나는 오늘 그것을 일반적인 용어인 ‘비전’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KCCJ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교회의 소망이나 비전이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과 소망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비전과 소망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비전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었다. 비전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비전이 생긴 것이 아니다.

각 시대와 지역의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자신의 시대와 사회에 맞게 적응시키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KCCJ는 1967년 제23회 정기총회에서 선교 60주년 기념 표어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해”라는 표어를 내어 걸고, “교회의 혁신, 동포사회의 변혁, 그리고 세계에 희망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당시 교세면에서는 지극히 작은 교회였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러한 비전을 갖고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KCCJ에는 그와 같은 비전이 있는가? 비전과 꿈이 없다면 역사 속의 많은 교회

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조용히 사라져 갈 뿐이다. 그 비전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교회론, 그리고 현대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선교론이 확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비전을 품고 교회론과 선교론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본인은 개 교회 차원에서 세 가지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목회자의 성장. 둘째, 신도의 성장. 셋째, 역사의 보존과 기억이다. 현재 KCCJ의 리더십의 많은 부분이 목회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목회자에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목회자는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교인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및 인격적인 대화, 그리고 권한의 위임을 통해 신도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어야 한다. 이 모순되는 듯한 두 명제가 극복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보존과 기억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를 전망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개 교회 차원에서, 후보, 회의록, 행사 자료 등을 폐기하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두고 정리하는 것은 오는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5. 맺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미국이다. 그런 미국은 2005년 8월 카트리나라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약 1800명이 사망하고 12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레베카 솔닛은 카트리나라는 재난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평범한 사람들의 이타적인 행동으로 인해 수 천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반면 이기적이며 거짓말에 선동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목숨을 잃은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이 일어난 곳에 대개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돌보는 가운데 ‘재난 공동체’라는 것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Rebecca Solnit, A Paradise Built in Hell, 2009). 그녀는 말한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행위를 결정한다. 그 당신의 행위가 당신 자신 혹은 타인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빚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의 행위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 우리 KCCJ는 매우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읊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23 : 10)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